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 광주 백범기념관서 기념식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백화미를 백범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놀이패 신명의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낙태죄, 헌법 불합치

헌재 결정, "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66년만에 폐지 수순·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나올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와 관련,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단순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기간을 둘 필요 없이 곧바로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도 된다는 견해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낙태죄 규정이 곧바로 폐기된다"라고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어렵다"고 했다. 이런 견해 역시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못해 채택되지는 않고,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문대통령·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뚝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 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경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함께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먼저 진행한다. 정상 내외는 방명록 서명 및 사진촬영 등을 함께하며, 김 여사와 트럼프 대

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촬영 뒤 별도 오찬을 위해 퇴장한다. 그 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단독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3명씩 배석자를 두고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회담에 배석한다. 이후에는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루워질 예정이다.

특히 앞서 청와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보상'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적 제재완화를 놓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힐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11일 미국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 또 꼬인다

주민들 시험가동 반대 집회 민관 거버넌스 회의도 연기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해결 조짐을 보이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다시 꼬여가고 있다.

주민들은 아이들 등교까지 거부하며 '시험가동 반대' 집회를 열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노조도 저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최종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회의가 미뤄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현안임에도, 참석자들의 조율을 거쳐 잡아놓은 회의 일정을 연기한 정부와 전남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 전남지사에서 열기로 했던 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거버넌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산자부측이 '(다른 일정 등으로) 바빠서 도저히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날로 연기했다는 게 거버넌스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임에도 거버넌스측이 납득할만한 회의 연기 이유를 내놓지 않으면서 반발하는 주민 여론에 가로막혀 연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퍼드는데, 자칫 4개월 간 공들여 온 거버넌스가 해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雪花秀
 高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으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청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